

‘삼성 합병-최순실 지원’ 맞교환…정점엔 박대통령

특검 이재웅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배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소와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 의혹이 상당히 짙게 드러난다.

특검팀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지시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합병 찬성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게 지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측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 430억원이다.

대통령 “합병 챙겨라” 지시 430억 모두 뇌물 공여 판단

“대통령-최씨 이익공유 관계”

최씨의 독일 법인인 비텍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삼성이 맺은 계약, 최씨 및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지원한 것,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이 모두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 씨 측 지원’은 각기 별개의 의혹으로 전개됐으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모습이다. 두 갈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박 대통령인 셈이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된 부분을 포함해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수자로서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방침과 관련해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정점 치닫는 특검수사

이르면 이달말 박대통령 대면조사

네갈래 줄기 모두 관여 의혹

수사 구체화 되면 靑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6일 “2월이 되기 전에 주요 의혹 줄기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가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단계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1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네 팀으로 나눠 ▲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의

을 향해 치달고 있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수사 진척 속도가 늦은 것으로 관측되던 의료 비리 관련 수사도 최근 이병석 전 청와대 주치의 소환을 시작으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주사 아줌마’ 백모씨 등 핵심 의혹 대상자들을 급수중에 줄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네 갈래 의혹 수사의 정점에 모두 박 대통령의 존재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네 갈래에 걸친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시점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월 포인트’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관저 내 일부 공간, 의무실, 경호처 등 특검 수사 대상 의혹에 간접하게 관련된 주요 공간에 대한 ‘외과 수술식’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직후 박 대통령을 청와대 또는 안가 등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처럼 박 대통령 조사를 조기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특검의 1차 수사시한인 2월28일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소환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두 사람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산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부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부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블랙리스트의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이 모두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적반하장 최순실 “왜 나에게 묻나” 화 내기도

현재 5차 변론 출두

짜증·분노·모르쇠 일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1)씨가 16일 자신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권력서열 1위가 증인, 2위가 정운하, 3위가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며 자신이 대통령에게 정책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결을 떠나려고 했지만, 자신이 이혼하고 독일 이주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도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과 딸의 개명 사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합격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알린 적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정씨의 이대 입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열린 5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시장에서 고영태씨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소추위원단의 거듭된 질문에 최씨가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자 심판정 내 방청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국회 측 대리인들이 자신의

정부 인사개입·재단설립 관여 등을 추궁하는 내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 질문의 강도가 높아지면 질문을 끊고 “억울하다”며 언성을 높이는 등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예컨대 최씨는 박 대통령과 ‘문화 융성’에 대해 논의한 녹취록을 국회 측이 제시하며 “기억하느냐”고 문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의도적인 질문 같다. 제가 무슨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나”고 되려 맞받아쳤다.

K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상황을 묻는 말에도 최씨는 “문체부 일을 왜 저한테 물어보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최씨는 대리인단이 자신의 최측근 고영태씨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계속해 추궁하자 “고영태에 대해서는 더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오히려 자신이 증인신분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태영21병원

▶인공신장실(야간투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